

# 제 18회 종교개혁기념 학술세미나

## 고통에 대한 멜란히톤과 헤르만 바빙크의 이해

일시: 2023. 10. 31. 화요일 오후2시  
장소: 고신대학교 1강의동 코람데오허브홀(대학교회)

**1부: 예배 14:00-14:20** 사회: 황대우 개혁주의학술원장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통384)

①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②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밖에 없도다/힘 있는 장수 나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③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하나/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히리라

기도- 황원하 목사 (대구산성교회, 담임)

설교- 정태진 목사 (본원 후원이사장, 진주성광교회, 담임)

“삶의 마지막까지 굳건하게”(벧전5:10~14)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1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2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14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사- 이정기 총장 (고신대)

축도- 이신열 목사 (고신대 신학과 교수)

14:20-14:30 휴식 및 포토타임

**2부: 종교개혁기념 학술세미나** 사회: 황대우 개혁주의학술원장

강의1 14:30-15:10

고난받는 성도와 보존하시는 하나님: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을 통해 본 성도의 고난

류성민 박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조직, 역사신학)

강의2 15:10-15:50

고통에 대한 헤르만 바빙크의 견해

박재은 박사 (총신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3부: 논평 및 질의토론**

논평1 15:50-16:00

이신열 교수(고신대 신학과, 조직신학)

논평2 16:00-16:10

우병훈 교수(고신대 신학과, 조직신학)

질의토론 16:10-16:30

청중 및 사회자

# 고난받는 성도와 보존하시는 하나님

##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을 통해 본 성도의 고난

류성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I. 서론

종교개혁 신학을 논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즉 진리를 위한 다툼의 역사에 집중하곤 한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른 진리를 위한 싸움은 단순한 이론적 논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다툼의 이면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삶에 대한 깊은 관심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항상 존재했다. 고난을 대하는 개혁자들의 견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 고난이란 오염된 교리를 가진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진리의 투쟁으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개혁자들의 입장은 그들의 개인적 삶의 여정보다는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교회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난과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 종교심이 아니라, 성경의 참된 교훈을 교회에서 지켜내고 바르게 구현하려는 교회의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었다. 현대에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개인의 삶에서 경험되는 심리적 요소에 관심이 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신자의 구체적인 삶과 구원에 자신의 신학적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신자의 삶에 반드시 존재하는 고난에 대한 고찰로 이어졌다.

개혁자들은 이러한 실제적이며 실천적 관심을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했다. 그들이 관심있게 살펴본 성경으로 시편을 꼽을 수 있다.<sup>1)</sup> 시편은 사람의 감성을 가장 함축적이면서 풍성하게 담고 있는 ‘시’라는 장르를 통해 종교적 감성을 전달하고 있다. 개혁자들은 시편이 주는 종교적 감성과 실천적 의미를 고찰하고, 사랑했고, 자신들에게 적용했다. 특히 시편에 등장하는 고난의 문제는 개혁자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다. 특히 종교개혁에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 즉 개신교회가 진리를 반대하는 교황을 비롯한 로마 가톨릭과 가톨릭 정치 세력을 통해 받는 심각한 고난의 문제는 현실적이며 사실적 문제였다. 시편은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에게 매우 실천적 교훈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멜란히톤은 루터와 함께 비텐베르크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1세대 종교개혁자이다. 흔히 ‘루터파의 2인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루터파라는 분파로 1세대 개혁자를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sup>2)</sup> 오히려 그의 신학은 루터의 성만찬 교리와 1580년 일치문서(Konkordienbuch, 1580)로 표현할 수 있는 루터파 신학과 달리 개혁파 신학과 일치한다. 특히 1560년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Friedrich III., 1515-1576)는 개혁파 종교개혁을 도입하려고 할 때 멜란히톤의 평가서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중요한 이야기이다.<sup>3)</sup> 더하여 1563년 발간된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의 주요 저자로 알려진 우르시누스가 멜란히톤의 제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4)</sup>

1) 시편은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성경이었다. 초대와 중세의 시편 사용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할 수 있다. Magne Sæbø ed., *HBOT. 1/1: Antiquity* (Göttingen: V&R, 1996)와 Magne Sæbø ed., *HBOT. 1/2: The Middle Ages* (Göttingen: V&R, 2000).

2) 대표적인 개혁파 신학자인 바빙크도 멜란히톤을 루터파 신학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 분류는 당대 잘못된 이해에 기인한 것이다. 현대에는 그나마 균형잡힌 평가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참고. 류성민, “바빙크의 멜란히톤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개혁신학』 2017(56), 119-146.

3) MBW 9119; CR 9, 961-966. Nr 6861B.; MSA 6, 484-486.); 참고. 이남규, 『우르시누스&올레비아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두 거장』 (서울: 익투스 2017), 118-119; 안인섭, “팔츠(Pfalz)의 개혁파 종교개혁의 발전(1558-1561): 멜란히톤과 칼빈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2021(71), 227-268.

멜란히톤은 1546년 발발한 슈말칼덴 전쟁에서 개신교 진영이 패배한 이후 개신교 진영과 교회가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을 당시 1548년 전쟁으로 닫혔던 비텐베르크 대학을 다시 열면서 시편을 강의하기 시작했다.<sup>5)</sup> 멜란히톤은 교회의 고난이 매우 심각하고, 고통이 엄청나게 큰 그 상황에서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본고는 비텐베르크 개혁자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을 통해 성도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교회에 유익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멜란히톤과 교회의 고난

### 1.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에 나타난 고난

멜란히톤은 시편 전반에서 성도의 고난의 삶을 발견한다. 그의 시편 해설에서 성도의 고난의 문제는 거의 모든 시편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시편 해설의 첫 부분의 일부만 살펴보는 것만으로 그가 성도의 고난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가를 알 수 있다.

우선 시편 서론이다. 멜란히톤은 예베소서 4장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문장으로 자신의 시편 해설을 시작한다. 하늘의 교훈의 빛(*lux doctrinae coelestis*)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부르짖음과 바른 예배가 사라지지 않고, 온 인류가 어둠과 오류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Doctores*)라는 교회의 직임을 보존하신다.<sup>6)</sup> 멜란히톤에게 교회가 처한 현실은 위태로운 것이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파괴하고 사라지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교회를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증거를 만드시고, 교훈을 가르치셨고, 위선자들의 견해를 반대하여 법과 약속을 해석하도록 하시고, 참된 해석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셨다. 그렇게 시편은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miracula testimonia*)가 되었다.<sup>7)</sup>

멜란히톤은 시편이라는 놀라운 증거들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교회의 보편 교리인 법과 복음(*in ... legem et Evangelium*)으로 분류한다.<sup>8)</sup> 그리고 시편 또한 법의 교훈과 복음의 약속이라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각 시편의 해설에서 이 분류를 사용하여 시편을 설명한다.

4) 이남규, 『우르시누스&올레비아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두 거장』, 52-53.

5)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Commentarii in Psalmos*(이후 시편 주석은 PK로 인용하고 뒷 숫자는 시편의 편수임)은 *Corpus Reformatorum: Philippi Melancthonis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Carl Gottlieb Bretschneider and Heinrich Ernst Bindseil (Halle, Braunschweig, 1834-1860), vol. 13, 1017-1244(이후 CR 13으로 인용함)에 있다.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은 서문(이후 Prol으로 인용함), 시편 1-60편, 110-133편 그리고 개별 시편들(시편 51편, 31편, 34편, 이후 Ps 51z, Ps 31z, Ps 34z로 인용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110-133편의 주석은 불가타(Vulgata) 성경을 기초로 주해한다. 그러나 편집자는 이를 히브리 성경의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하였다. 그래서 시편 114편과 115편의 일부가 나뉘지고, 117편과 118편의 일부가 나뉘진다. (이것은 이후 PK 114/115와 Ps 117/118으로 인용함) 저자의 학위 논문이 이 주제를 다루었다. 류성민, 『교회의 가장 달콤한 노래 시편.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의 주해와 신학』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23).

6) PK Prol, CR 13, 1017. “Ad Ephesios quarto scribitur, divinitus servari ministerium doctrinae coelestis, et subinde excitari Prophetas, Pastores et Doctores, ne lux doctrinae coelestis, vera invocatio Dei, et veri cultus extinguantur, et totum genus humanum ruat in tenebras, errores et aeternum exitium.”

7) PK Prol, CR 13, 1017.

8) PK Prol, CR 13, 1018. “Ut universa doctrina Ecclesiae in duas partes distribuitur, videlicet legem et Evangelium, ita discernantur et Psalmi: ”

멜란히톤이 시편에서 발견하는 교회의 삶이란 단조롭고 평탄하지 않다. 교회는 자신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다. 그래서 교회의 삶은 복잡하고 굴곡진 고난의 연속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훈은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법과 교회를 지키며 보호하시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은 혼란스러운 현실의 삶에서도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된다. 교회에게 고난이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고난이 익숙한 일도 아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은 항상 끔찍하고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존은 우리를 놀랍게 한다. 하나님은 교회의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자기 교회를 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것을 그림과 같은 예로 보여주셨다. 성경, 특히 시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존을 경험하는 주요한 증거들이다.

이어지는 시편 1편부터 3편의 해설에서도 고난은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 멜란히톤은 시편 1편이 전체 시편의 서문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교회가 큰 고난 가운데 헛된 수고와 위협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에 꽃이 필 것이고, 이단들은 망할 것이라고 해설한다.<sup>9)</sup> 이어 시편 2편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고 규정하며, 메시아의 오심의 의미를 우선 복음의 대적자들을 향한 꾸지람과 위협으로 설명하고 이어 메시아의 존재와 그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한다. 특히 멜란히톤은 이러한 믿음에 대한 참된 교훈이 부르짖음의 참된 훈련 가운데 강조되어야 하고, 가르쳐져야 한다고 지적한다.<sup>10)</sup> 시편 3편의 해설 시작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와 다른 구성원들 가운데 존재하는 고난과 다툼과 간구에 대한 언급이다.<sup>11)</sup>

이후의 시편 해설들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시편 44편의 해설은 멜란히톤이 시편을 어떻게 교회와 연관시키는지 잘 보여준다.

이 시편은 모든 시대 교회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선 역사적 설명을 포함한다.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교회를 모으는지, 분명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 백성들로부터 구분되는지에 대한 교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교회는 확실하고 유일한 규범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분명히 말씀의 보호자가 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가질 미래의 지위는 세상 나라들의 지위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나라들은 잔인하게 교회를 침략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하여 영원토록 자신의 집단과 복음의 전파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고백과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비추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교회가 알아야 한다. 그 집단이 무엇인지, 어떻게 모이는지, 무엇을 행하기 위해 부름 받았는지, 어떤 위협이 있고, 도움이 있고,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고난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역사적 기억이 제시된다, 이는 또한 간구의 이유들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자신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교회가 그를 찬양하고 참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로부터 아들에게 상속자를 모으기를 원하셨다. 그는 아들을 통해 이 상속자를 구속하신다. 그를 다

9) PK 1, CR 13, 1019.

10) PK 2, CR 13, 1021. "Sed Prophetarum inculcarunt veram de fide doctrinam, et postea Christus et Apostoli. Et haec discenda est in veris exercitiis invocationis."

11) PK 3, CR 13, 1021. "Similes sunt, in Christo et caeteris membris Ecclesiae Dei afflictiones, agnos et preces, etsi in Christo antecellunt."

스리고 놀라운 방식으로 보호하며, 보존하신다.<sup>12)</sup>

## 2. 멜란히톤의 시편 강의와 역사적 맥락

멜란히톤의 시편 해석은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사실 개인의 성경 해석은 그의 신앙 경험과 처한 상황적 맥락과 관계되어 있다. 멜란히톤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그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상황적 해석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성경이 교회가 처한 상황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현재적 계시라는 이해는 멜란히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은 주로 1548년에서 1551년 사이에 이루어진 비텐베르크 대학의 강의에서 기반한다. 편집된 시편 주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시편 1편에서 60편까지, 두 번째 부분은 시편 110편부터 133편까지, 세 번째 부분은 개별 시편 해설들이다. 이 시기는 독일 개신교회와 비텐베르크와 멜란히톤에게 매우 역동적이며 중요한 시기였다. 우선 1546년 2월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사망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 전, 독일 제국의 황제 칼 5세(Karl V., 1500-1558, 제위 1519-1556)는 독일의 종교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7월 슈말칼덴 동맹(Schmalkandischer Bund)에 전쟁을 선언했다.<sup>13)</sup>

전쟁 초기의 주요 인물은 황제와 작센의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der Kurfürst von Sachsen, Johann Friedrich I., der Großmütige, 1503-1554)였다. 그들은 도나우(Donau) 강변에서 서로 전투를 펼쳤다. 그 와중에 황제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작센 공작 모리츠(Herzog Moritz von Sachsen, 1521-1553)가 전쟁에 개입했다. 그는 신앙고백에 있어서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전쟁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황제의 편에 섰다. 황제가 그에게 전쟁에서 자신의 편에 선 대가로 여러가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황제는 모리츠에게 선제후위(Kurwürde)와 영토의 확장을 약속했다. 모리츠는 황제와 약속 하에 비어있던 비텐베르크를 공격했고, 프리드리히는 군사를 뒤로 물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547년 4월 24일 황제는 엘베 강변의 뮐베르크(Mühlberg an der Elbe)의 로카우어 하이데(Lochau Heide) 전투에서 작센의 선제후에 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전쟁의 패배 이후 프리드리히는 선제후위를 내려놓고,

---

12) PK 44, CR 13, 1089f. “Hic Psalmus imago est Ecclesiae omnium temporum. Ideo primum continet historicam narrationem, quae est doctrina ostendens unde sit Ecclesia, a quo collecta sit, videlicet a Deo, et quod sit Dei peculiaris populus, seiunctus a caeteris gentibus: Quodque certum et singulare munus habeat, scilicet ut sit custos verbi, quo se patefecit Deus, quod sit dissimilis status futurus huius populi et imperiorum mundi: quod imperia mundi crudeliter grassatura sint in Ecclesiam, sed tamen Deum servaturum esse semper aliquem suum coetum custodem et propagatorem Evangelii: et quod velit in his afflictionibus lucere fidem nostram in confessione et invocatione. Haec omnia scire Ecclesiam necesse est, quid sit, qualis coetus sit, ad quod munus vocata sit, quae sit habitura pericula, quae auxilia, quos exitus. Nam pii non possent perferre aerumnas, si haec nescirent. Ideo historica commemoratio proponitur, quae quidem et causas petitionis continet. Ideo enim Deus Ecclesiam vult servare, quia ipse eam elegit et diligit, et vicissim Ecclesia eum celebrat et vere invocat. Voluit Deus ex genere humano colligere haereditatem Filio. Hanc redimit per Filium hanc regit, et mirabilibus modis defendit et servat.”

13) 슈말칼덴 전쟁 과정에 대한 대략적 이해를 위해서 다음을 참고. Hubert Kirchner und Gert Haendler, *Reformationsgeschichte von 1532 - 1555/1566. Festigung der Reformation, Calvin, katholische Reform und Konzil von Trient* (Berlin: Evang. Verl.-Anst. 1987) (Spätes Mittelalter, Reformation, konfessionelles Zeitalter, 6), 89-93; Heinz Scheible, *Melanchthon. Vermittler der Reformation: eine Biographie*. Neuausgabe, umfassend bearbeitet und erweitert (München: C.H. Beck, 2016), 208-211.

자신의 영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했다. 결국 1547년 6월 6일 종교개혁의 중심지, 비텐베르크가 작센의 모리츠에게 넘어갔다. 이를 통해 개신교 진영의 정치세력은 심각하게 축소되었다.<sup>14)</sup> 전쟁의 패배는 비텐베르크 대학까지 영향을 주었다. 우선 비텐베르크 대학은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다. 새로운 주인인 모리츠가 이미 라이프치히 대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리츠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유지를 결정했고, 멜란히톤은 대학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슈말칼덴 전쟁의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 제국회의가 1547년 9월에서 1548년 6월까지 열렸다. 황제는 제국 전체에 적용되는 종교법을 원했지만, 가톨릭 진영의 반대로 개신교 진영에만 적용되는 종교법이 공포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임시령”(Augsburger Interim)이었다. 모리츠는 이 법을 자신의 영지에 도입하는 것을 연기, 거부했고, 이를 위해 신학자들에게 협상안 작성을 요구했다. 그 결과로 발생한 중간 문서가 소위 “라이프치히 임시령”(Leipziger Interim)이고, 이를 통해 “아디아포라”(Adiaphora) 논쟁이 발생했다. 황제는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키워가려는 시도를 계속했고, 이것은 가톨릭 진영의 제후들에게도 불만을 만들어냈다. 일련의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모리츠는 결국 1552년 황제를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이 “제후전쟁”(Fürstenkrieg)이다. 황제는 가톨릭 제후의 외면 가운데 결국 모리츠에게 패배하고 파사우 조약(Passauer Frieden)을 맺게 되었고, “아우크스부르크 임시령”은 힘을 잃게 되었다. 이 흐름은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평화(der Augsburger Religionsfrieden)로 이어지며 개신교회는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받았다.

멜란히톤은 1548년에서 1551년 사이 개신교의 정치적 종교적 위기의 한 복판에서 시편을 강의했다. 특히 슈말칼덴 전쟁의 패배로 인해 개신교 정치 지도자들이 사로잡히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전쟁으로 인해 닫혔던 비텐베르크 대학이 1548년 10월 말 다시 열리고, 멜란히톤은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와 대학을 위한 강의로 시편을 선택했다. 멜란히톤은 이런 정치적 종교적 배경에서 교회와 대학과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시편에서 찾았다.<sup>15)</sup>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개신교회는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 앞에 있었고, 상황은 매우 위태롭게 보였다. 개신교회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로마 교회로부터 참 교회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정작 현실적 정치적 상황은 개신교를 향하여 매우 부정적이었다. 멜란히톤은 이렇게 고난이 가득한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해 그들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랐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이 고난들 가운데 큰 달콤함과 우아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sup>16)</sup> 교회가 큰 곤란에 빠졌던 것은 비단 현재만의 일이 아니었다. 교회의 교사요 선조인 다윗 또한 고난의 삶을 살았다. 심지어 다윗의 삶의 전체 여정은 고난으로 이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증거를 주셨다.<sup>17)</sup> 멜란히톤이 기대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였다. 위기와 고난은 성도에게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성도가 버림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멜란히톤은 시편에서 이런 메시지를 발견했고, 당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를 전하고자 했다.

14) 슈말칼덴 전쟁과 이후에 발생한 개신교 진영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참고. 류성민, 『교회의 가장 달콤한 노래 시편.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의 주해와 신학』, 39-44; Irene Dingel, 류성민 역, 『종교개혁, 인물과 중심지를 따라 읽다』 (서울: 영음사, 2022), 324-342.

15) 멜란히톤 시편 주석 본문의 전승에 대해 다음을 참고. 류성민, 『교회의 가장 달콤한 노래 시편』, 44-51.

16) PK 110, 3, CR 13, 1152. “quod cum fit magnam dulcedinem et eloquentiam in his carminibus esse intelligemus.”

17) PK 132, CR 13, 1219. “quod totum curriculum Davidis nominat afflictiones, in quibus Deus testimonium praebuit patefactionum suarum in isto populo.”

### III. 시편에 나타난 고난의 삶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특별한 집단이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점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실 성도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더하여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론적 예상과 현실은 모순된다. 고난은 교회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심지어 멜란히톤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는 집단이라고 단언한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 하나님은 고난 받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유롭게 하며, 다스릴 것이다.<sup>18)</sup>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당하는 현실적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다. 멜란히톤은 시편 13편에서 엄청난 슬픔을 발견한다. 교회가 당하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즉각 돕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유케 하심이 늦어지고 막히는 것으로 인해 영혼이 지치고 시험을 받고 있다.<sup>19)</sup> 이런 경험은 비단 시편 저자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멜란히톤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과 동떨어져 심지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멜란히톤은 시편 16편의 해설에서 제공한다. 고난은 교회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은 교회를 위한 목적이 있다. 마귀가 당하는 영원한 고통은 해로운 일인 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매우 유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의 고난은 구원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고난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가치가 있다.<sup>20)</sup>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sup>21)</sup>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가 받을 영광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찬양과 예배로 이어진다. 물론 직접적으로 시편 16편 본문이 다루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의 고난을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하다. 시편 22편에서 멜란히톤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 시편이 성도가 아주 큰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유를 구하는 기도라고 설명한다. 이 시편은 매우 슬픈 감성을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고난을 조상들의 고난과 비교하며, 자신의 고난이 크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자유에 대한 감사가 뒤따르고 있다. 왜냐하면 시편 저자는 고난과 자유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sup>22)</sup> 이처럼 교회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리고 고난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도 큰 일이었다.

### IV. 개인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고난의 관계

18) PK 14, CR 13, 1038.

19) PK 13, CR 13, 1036. "Exordium est querela valde tristis, qua deplorat differri auxilium et liberationem. Sicut omnes experimur in magno dolore et veris aerumnis, languiefieri animos mora, cum non statim opitulatur Deus."

20) PK 16, CR 13, 1041.

21) PK 16, CR 13, 1042.

22) PK 22, CR 13, 1049. "Precatio est petentis liberationem in maximis aerumnis, et in morte, et habet tristia pa,qh, quibus confert suas afflictiones cum patrum aerumnis, et queritur suas esse maiores. ... tamen scit suas afflictiones et liberationes imagines esse afflictionum et victoriarum Christi, "

멜란히톤은 시편이 시편 저자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고, 이 고난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깊게 연결되어 있고, 더하여 시편 저자를 포함한 교회 구성원 전체의 고난으로 확대하여 이해된다. 우선 시편 저자의 고통과 고난은 저자 개인만의 것이 아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지 기록하고 있다. 멜란히톤에 따르면, 이 기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은 적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시편은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세우도록 기록된 것이다.<sup>23)</sup>

멜란히톤은 이런 시편의 내용에서 하나의 원리를 찾고 있다. 바로 다윗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며, 동시에 다윗의 말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다.<sup>24)</sup>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인 것과 동시에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물론 본문의 맥락에 따라 살피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편이 다윗의 경험을 나타내고 그의 개인적 교훈을 목격하는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점은 중요하다. 다윗은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으로, 다른 부분에서 성도들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시편에서 사용되고, 그런 원리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멜란히톤의 견해이다.

고난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교회 또한 고난을 받고, 부활한다.<sup>25)</sup> 다윗의 고난과 승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의 모형이다.<sup>26)</sup> 이렇게 다윗의 고난과 승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와 연결된다. 여기에서 다윗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가장 슬픈 감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가 처한 위험은 그에게 실제였다. 그리고 이는 조상인 아브라함, 야곱, 요셉이 경험한 자유와 살아남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도 주어질 것이 분명하다.<sup>27)</sup>

성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두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만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sup>28)</sup> 그리스도의 고난이 더 근본적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매우 특별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갖는 열매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순종으로 화해케 하는 것이다.<sup>29)</sup> 다른 표현으로 멜란히톤은 시편 118:17의 해설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를 죽음의 파괴로 이해하며, 메시아의 고난이 이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메시아는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해 고난을 받았다.<sup>30)</sup> 동시에 메시아는 자신이 고난을 받지만 보존될 것을 확실히 알았다. “고난 가운데 내가 부르짖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깊은 가운데 응답하셨다.” 깊은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고난과 자유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 메시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 세워졌다. 즉 그는 교회를 소유하신다. 그리고 그는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허락

23) PK 42, CR 13, 1087. “sed haec non propter ipsum, sed propter nos scripta sunt. Habent et alii multi in Ecclesia ingentes dolores, alii magis, alii minus acres. Omnes autem discamus voluntatem Dei esse, ut in talibus doloribus non succumbamus, sed erigamus nos fide et spe.”

24) PK 3, CR 13, 1022. “Haec regula in Psalmis observetur, ut sciamus saepe vocem Davidis, simul esse vocem Christi, et e contra vocem esse Davidis seu nostram vocem.”

25) PK 16, CR 13, 1041f.

26) PK 18, CR 13, 1044.

27) PK 22, CR 13, 1049; PK 59, CR 13, 1141.

28) 멜란히톤은 그의 시편주석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표현할 때는 ‘*passio*’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도와 교회의 고난과 구분하여 사용한다. 참고. 류성민, 『교회의 가장 달콤한 노래 시편』, 189f.

29) PK 30, CR 13, 1083. “Quia ira tua placata est mea obedientia”

30) PK 117/118, CR 13, 1184. “Sequentes versiculi exponunt causam finalem, propter quam passus est Messias, scilicet, ut fieret fundamentum Ecclesiae, propter suam reverentiam exauditus est etc.”



하지 않으신다.<sup>31)</sup> 이렇게 멜란히톤에게 메시아의 고난은 항상 교회의 승리와 연결된다.

## V. 교회의 고난의 원인

교회에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의인들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고난은 어려운 문제이다. 멜란히톤에게도 교회의 고난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다. 그는 이 문제를 사람이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다. 그에 따르면 사람의 이성은 의인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복음의 교리만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난의 이유는 바로 부패한 본성에 붙어 있는 죄이다.<sup>32)</sup>

멜란히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철학자들은 고난의 중요한 이유를 사람 밖에 있는 요소들 (*materia*)에서 찾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고난의 원인은 사람의 본성에 있는 죄이다.<sup>33)</sup> 하나님은 죄 때문에 전 세계를 처벌하신다. 예를 들어, 소돔, 이집트, 예루살렘, 바벨론, 로마가 그 이유로 파괴되었다. 하나님은 이런 예를 통해 불경건한 사람들을 처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으로 죄에 분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은 사람의 죄 때문이다.

성도 안에도 여전히 죄가 존재한다. 그들은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성취에 있어 의롭지 못하다. 더하여 여전히 내면에 악덕과 의심과 불신과 부주의함과 다른 악들이 가득하다. 이런 점에서 성도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멜란히톤은 성도가 믿음을 통해서 위선자들(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된다고 주장한다.<sup>34)</sup> 멜란히톤은 고난의 원인이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남은 죄악에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그 의미가 성도의 고난이 죄에 대한 처벌을 가리키지 않는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죄의 처벌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멜란히톤은 은혜로운 용서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죄 용서의 교훈은 성도의 영혼을 음부에서 다시 불러낸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용서를 간구하도록 가르치신다.<sup>35)</sup>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고난은 죄로 인한 형벌적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교훈적 목적으로 존재한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부패한 본성의 죄가 고난의 원인이라는 것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멜란히톤은 교회가 세상 나라들처럼 우상이나, 압제나, 욕망에 의해 고난 받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고난은 하나님을 싫어한 마귀의 활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불경건한 지도자들을 자극하여 교회 안에 날뛰도록 한다. 이런 방식으로 마귀가 하나

---

31) PK 117/118, 7, CR 13, 1185. "Messiam, qui hic profitetur se constitutum esse, ut sit caput anguli, id est, ut habeat Ecclesiam, quam non sinat interire."

32) PK 37, CR 13, 1076. "nec philosophia ulla monstrat causas, sed sola Evangelii doctrina. Prima autem et praecipua causa est, peccatum quod in hac depravatione naturae adhuc haeret."

33) PK 32, CR 13, 1066. "Principalis causa calamitatum humanarum est, non, ut philosophi putant, materia, sed peccatum in natura hominum."

34) PK 32, CR 13, 1065. "discernens hypocritas et iustos fide."

35) PK 32, CR 13, 1066.

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없애려 시도할 때, 교회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을 내놓는 방식으로 대응한다.<sup>36)</sup>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모든 불경건한 이단과 압제자들의 분노를 당한다. 교회는 이에 대항하여 방어를 해야 한다. 그 방어의 수단은 학문(*studia*)과 가르침(*disciplinam*)이다. 멜란히톤은 교회의 바른 교리를 부수려는 세상의 시도가 교회의 고난의 원인임을 밝히고, 교회는 이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열심히 지키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7)</sup> 이런 진술들을 통해 볼 때, 멜란히톤은 자신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바로 마귀의 흥분된 행동이라고 이해한다. 이에 대해 교회는 차분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놓아야 한다.

경건한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들 모두 죽음에 의해 놀려있고, 그 때문에 끔찍한 환란으로 괴롭힘을 당한다. 예를 들어 시편 32편의 저자는 뼈가 녹는 아픔을 경험할 정도로,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거의 죽는 것 같았다고 고백한다.<sup>38)</sup> 다만 불경건한 사람들은 억압되어 영원한 사망으로 파멸한다.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은 그들이 죄 용서를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음과 비참에 던져졌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형벌과 같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견디고, 용서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고, 자신이 도움을 받아, 자유가 계획되었음을 안다.<sup>39)</sup>

더하여 이생의 고난은 죄와 마귀라는 원인보다 더 궁극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sup>40)</sup>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 있다. 멜란히톤은 이 말에 대해 아벨과 예레미야를 언급하며 설명한다.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선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에서 선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생에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죄가 알려지고, 인류의 끔찍한 타락이 알려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전체 교회는 고난에 던져졌다.<sup>41)</sup> 그렇게 교회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고난의 원인을 어느 정도 인식하다고 하더라도 고난 자체는 성도에게 매우 현실적이다. 달리 말하면 고난은 성도를 매우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 이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정서이다. 멜란히톤은 시편 51편을 큰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평가한다. 이 안에 담긴 슬픈 탄식은 사실 자신의 죄가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비와 연결되고, 감사와 예배로 이어지게 된다.<sup>42)</sup> 특히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36) 참고. PK 44, CR 13, 1090. “Non adfligitur Ecclesia, ut imperia mundi, propter idola, tyrannides, libidines. Nam hae sunt praecipuae causae cur mutantur, sed quia diabolus odit Deum, irritat impios principes, ut saeviant in Ecclesiam. Cum igitur diabolus conatur delere veram Dei noticiam, Ecclesia in suppliciis opponat veram confessionem, ita nostrae afflictiones fiunt testimonia doctrinae et sacrificia Deo grata.”

37) PK 28, CR 13, 1060.

38) PK 32, CR 13, 1065.

39) PK 32; CR 13, 1066. “Utrique pii et impii morte onerati sunt, et horrendis calamitatibus excruciantur. Sed impii succumbunt ac ruunt in aeternum exitium, quia nolunt audire remissionem peccatorum: Econtra vero petentes remissionem peccatorum, sciunt se propter peccatum subiectos esse morti et aliis miseriis, sed tamen non abiici a Deo propter has poenas. Sustinent igitur aerumnas et petunt remissionem, et sciunt se vere exaudiri a Deo, et iuari, et tandem liberationem propositam esse.”

40) PK 49, CR 13, 1104. “certa causa est consilii divini.”

41) PK 49, CR 13, 1104. “Vult autem Deus praesertim in Ecclesia, agnosci peccatum et horrendam totius generis humani corruptionem. Ideo tota Ecclesia subiecta est aerumnis.”

42) PK 51, CR 13, 1113.

이 알지 못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고 더하여 참된 위로를 보여준다.<sup>43)</sup>

이생에서 사람들이 변성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그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멸망한다. 그곳에서는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람의 보호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은 지금 큰 환란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죽음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교회의 동거 가운데 영원한 선으로 생명과 지혜와 의와 기쁨으로 장식될 것이다.<sup>44)</sup>

## VI. 고난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고난은 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안겨준다. 이는 두 가지 반응을 가져온다. 사울과 유다와 같은 많은 불경건한 사람들은 고난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다윗과 히스기야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고통을 견디고, 죄 용서의 약속을 붙잡는다.<sup>45)</sup>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도움에 대한 위로를 얻는다. 이는 큰 고통 가운데 참된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시작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이 교훈은 세상의 철학자들과 이성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이다.<sup>46)</sup>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베풀시고, 이러한 성경의 예를 통해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자유를 구하고 기대하도록 하신다.<sup>47)</sup>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학대적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다만 성도들이 이생에서 여전히 본성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절망과 싸운다. 자신의 죄의 크기와 부끄러움을 생각할 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중보자로 인해 자신을 받으셨다는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저 이 경험은 그들에게 사자가 온 뼈를 부수는 것 같은 고통일 뿐이다.<sup>48)</sup> 멜란히톤의 이런 설명은 죄의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려준다.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길에 떨어진 동전 줍는 것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

멜란히톤은 시편 4편의 저자가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한다. 교회는 재앙과 십자가 아래 처하게 되었고,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증거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방인들보다 더 불행한 상태였고,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에 대한 전체 교훈이 헛된 것 같았다. 다윗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강력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의 경험이 잔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놀라운 방식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둘째, 내적 위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신다. 이를 통해 강력한 고난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sup>49)</sup>

성도들 가운데 고난 중에도 교회를 위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다. 멜란히톤은 그 예로 출애굽기 1장의 조산사, 열왕기상 18장의 오바댜를 언급한다. 그리고 더하여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가 교회를 막센티우스(Maxentius)와 리키니우스(Licinius)로부터 보호한 사건을

43) PK 28, CR 13, 1060.

44) PK 49, CR 13, 1105.

45) PK 28, CR 13, 1059.

46) PK 32, CR 13, 1065.

47) PK 52, CR 13, 1122.

48) PK 32z, CR 13, 1235.

49) PK 4, CR 13, 1023.

언급한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 다른 경건한 지도자들이 교황의 분노와 왕의 군대들의 잔인함을 돕기를 원치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시편은 이런 사람들에게 매우 달콤한 위로를 제시한다.<sup>50)</sup> 경건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고통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시편이 가르치는 바는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고난 중에도 도움이 있다는 것이다.<sup>51)</sup> 경건한 사람이 지금은 억눌려져 있을지라도 그 악한 날에 주님은 그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시편에 덧붙여진 약속이다.

우리가 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고난을 가볍게 하실 것이며, 결국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한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예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 위로를 기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대적자들에게 의해 억눌리지 않고, 이생에서 그리고 내생에서도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찬양할 것이다.<sup>52)</sup> 고난의 시간은 짧지만, 그 후에 영원한 위로가 있다.<sup>53)</sup>

## VII. 고난이 성도에게 주는 효과

### 1. 고난은 성도를 부르짖음과 간구로 이끈다

성도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받는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르짖음과 간구를 가리킨다. 즉 약속에는 믿음과 간구가 더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고,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보호받는다. 이것을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알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고난은 믿음과 간구와 연결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sup>54)</sup> 멜란히톤은 시편 21편의 해설에서 시편이 성도들의 정신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목적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모든 일하심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sup>55)</sup>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이성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시를 받아 버려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우리가 회개로 다시 돌아오고, 믿음이 강화되고, 교리의 증거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sup>56)</sup>

이렇게 고난 가운데 성도가 부르짖는 내용은 고통의 경감이다. 위기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은 모두 도움을 요청한다. 다만 성도들의 간구는 이방인의 간구와 결과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성도들은 다윗이 자유롭게 되는 예를 통해 약속의 증거를 소유한다. 그리고 그 예와 같이 성도의 간구는 응답되어 형벌이 경감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신다.<sup>57)</sup>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한다. 즉 죄의 용서와 화해와 영원한

50) PK 41, CR 13, 1083f. "Talibus hic Psalmus dulcissimam consolationem proponit"

51) PK 41, CR 13, 1084. "Econtra vero Psalmus docet opitulandum esse innocentibus in calamitate."

52) PK 27, CR 13, 1070.

53) PK 30, CR 13, 1063. "Significat breve esse tempus afflictionis, sed postea consolationem aeternam."

54) PK 11, CR 13, 1035.

55) PK 21, CR 13, 1048.

56) PK 51, CR 13, 1118. "Ratio, cum in calamitatibus sumus, iudicat nos negligi et proiici a Deo. Sed vox divina in Ecclesia docet, afflictionum alias esse causas, videlicet ut revocemur ad poenitentiam, aut confirmemur, aut sint testimonia doctrinae."

생명과 교회의 보존과 우리 국가의 보존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 인하여 또한 우리는 고난의 경감을 구하고 기대한다.<sup>58)</sup>

## 2.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다

고난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근거한다. 이 명령으로 교회는 사라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견디고 보호를 경험하게 된다. 교회의 교훈은 그래서 은밀하고 놀라운 것이다. 달리 말하면 진실하고 효과적인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자들의 교훈과 다르다. 교회는 세상 지도자들의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가르칠 뿐이다.<sup>59)</sup>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은 경건한 사람에게 보호를 보장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징벌로 위협한다.<sup>60)</sup> 그리고 약속은 우선 위로로 주어진다. 멜란히톤은 시편 112편을 해설하면서 이 시편이 교회와 경건한 사람의 위로라고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고난으로 약하게 되고, 하나님께 낙담한다. 그러나 위로는 가장 달콤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와 영원한 선한 것들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위로는 교회의 약함과 낙담을 막아준다.<sup>61)</sup>

성도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시간적 구분으로 영원한 약속과 이생의 약속으로 분류된다. 우선 영원한 약속이 있다. 교회는 원칙적으로 영원한 좋은 것을 위해 부름 받았다.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견고하다. 육적인 좋은 것이 있든지 없든지 말이다. 다윗은 회개를 행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또한 확실히 자신이 영생의 상속자라는 것을 세워야 한다.<sup>62)</sup>

더하여 현재의 좋은 것들에 대한 약속이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생에서 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적인 좋은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의 좋은 것들의 약속에는 십자가와 고난의 예외가 더해진다.<sup>63)</sup> 그런 이유에서 육적인 좋은 것들이 각 개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은 교회가 십자가에 순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지만 육적인 좋은 것들의 약속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교회를 뛰어넘게 보신다. 그래서 이생의 육적 약속은 교회에 유익이 된다. 교회는 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부르짖음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고, 더하여 당하는 처벌과 같은 고난 가운데 고통의 경감을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sup>64)</sup> 그러므로 교회는 이생에서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확실하게 언제나 이생에서 보존된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고난을 경감시키신

---

57) PK 4, CR 13, 1024.

58) PK 48, 8 CR 13, 1102. "Expectamus misericordiam tuam, id est, remissionis peccatorum, reconciliationem et vitam aeternam, conservationem Ecclesiae et huius nostrae politiae, propter Mediatorem quem nobis promisisti. Propter hunc etiam mitigationem communium aerumnarum petimus et expectamus."

59) PK 119 pe, 1 CR 13, 1198. "Docemus sapientiam non principum mundi, sed stulticiam crucis."

60) PK 11, CR 13, 1035. "quae defensionem piis pollicentur, et minitantur poenas impiis."

61) PK 112, CR 13, 1172. "Hic Psalmus consolatio est Ecclesiae et piorum adversus scandalum crucis. Quia enim multi aerumnis Ecclesiae franguntur, et deficiunt a Deo, opponitur hic consolatio continens dulcissimas promissiones praesentium et aeternorum bonorum"

62) PK 112, CR 13, 1172.

63) PK 112, CR 13, 1173. "Aliae autem sunt promissiones bonorum praesentium. Quia enim in hac vita colligitur Ecclesia, opus est etiam bonis corporalibus, ... sed addita est promissionibus bonorum praesentium exceptio crucis et castigationis."

64) PK 112, CR 13, 1173.

다.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불경건한 사람들은 가시적이고 확실한 도움을 갖는 것을 원하지만, 교회는 그런 가시적 도움으로 보호되기를 원하지 않는다.<sup>65)</sup>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으로 보존과 경감을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 VIII. 결론

사람은 죄와 죽음으로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에게 받아들이시는 엄청난 호의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죄와 죽음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다.<sup>66)</sup>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는 이처럼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고통과 다툼과 간구들이 여전히 있다.<sup>67)</sup>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가는 현실이다.

교회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은 온갖 고난이다. 이 고난은 개인의 일상적 삶의 경험을 지칭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세상이 대적하는 대상인 교회 전체로 경험하는 고난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신다. 그리고 이 고난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고,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승리를 교회의 승리로 받아 자연스럽게 승리를 확신하게 이르게 된다.

멜란히톤은 자신과 교회가 처한 비극적 현실에서도 시편을 통해 위로를 찾고 더 간절하게 구원을 간구했다. 멜란히톤에게 고난은 현실의 문제였고, 성도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였다. 개인의 정서적 삶에 영향을 끼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위로와 고통의 경감을 간구하도록 하시고, 궁극적 구원을 위해 부르짖도록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다. 시편이 그 증거였다.

멜란히톤은 교회의 고난이라는 현장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위기의 상황에도 학생들을 불러 모아 대학을 다시 열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강의함으로 그들에게 이 역사적 현실적 상황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높이기를 원하셨다. 대학은 특히 목회자 후보생을 키우는 기관이다. 교회의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와 관계된 것이다. 교회의 말씀 전파의 직임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다. 멜란히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고자 한 것이다.

멜란히톤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성경이 진실한 의미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렸다. 한국 교회도 위기라고 한다.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사회는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하다. 젊은이들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교육받았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에 관심이 있지만, 그것은 다만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영적 윤리적 영향력도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16세기 중반의 교회는 전쟁이라는 물리적인 적극적 반대를 통해 개신교회를 없애지게 하려는 엄청난 물리적 고난을 경험했다. 이와 달리 21세기 한국교회를 향한 마귀를 비롯한 대적들의 공격은 정신적이고, 사회적이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교회가 이런 공격에 대해 취해야 할 일은 16세기나 21세기나 다르지 않

65) PK 112, CR 13, 1173.

66) PK 8, CR 13, 1031.

67) PK 3, CR 13, 1021.

다. 고통이 크고 그로 인해 아픔이 있더라도, 고난을 없애거나 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멜란히톤이 고난 받는 교회를 위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구원성들에게, 특별히 목회자와 후보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보존되고, 그것이 실효적으로 전파되어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멜란히톤의 사역은 교회와 목회자 후보생 양성기관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의 보존을 통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비록 위기는 있지만, 그래서 타격도 받고, 아픔도 경험하지만,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고통의 경감을 경험할 것이다. 다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분명하다. 더하여 사역자를 길러내는 기관들을 향한 메시지 또한 분명하다. 우리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해야 한다. 시편이 멜란히톤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이었고, 이 교훈은 21세기 한국 교회의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 참고문헌

- Philippi Melanchthons opera quae supersunt omnia*, hg. v. Carl Gottlieb Bretschneider und Heinrich Ernst Bindseil, 28 Bde. Halle und Braunschweig 1834-1869 (Corpus Reformatorum 1-28). = CR
- Melanchthons Briefwechsel. Kritische und kommentierte Gesamtausgabe*, im Auftrag der Heidelberg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hg. v. Heinz Scheible u.a., Stuttgart-Bad Canstatt 1977-. = MBW
- 류성민. 『교회의 가장 달콤한 노래 시편.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의 주해와 신학』. 부산: 개혁주의 학술원, 2023.
- 류성민. “바빙크의 멜란히톤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개혁신학』 2017(56): 119-146.
- 안인섭. “팔츠(Pfalz)의 개혁파 종교개혁의 발전(1558-1561): 멜란히톤과 칼빈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2021(71), 227-268.
- 이남규. 『우르시누스&올레비아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두 거장』. 서울: 익투스 2017.
- Kirchner, Hubert und Haendler, Gert. *Reformationsgeschichte von 1532 - 1555/1566. Festigung der Reformation, Calvin, katholische Reform und Konzil von Trient*. Berlin: Evang. Verl.-Anst. 1987. (Spätes Mittelalter, Reformation, konfessionelles Zeitalter, 6)
- Dingel, Irene. 류성민 역. 『종교개혁, 인물과 중심지를 따라 읽다』. 서울: 영음사, 2022.
- Scheible, Heinz. *Melanchthon. Vermittler der Reformation: eine Biographie*. Neuausgabe, umfassend bearbeitet und erweitert. München: C.H. Beck, 2016.
- Sæbø, Magne ed., *HBOT. I/1: Antiquity*. Göttingen: V&R, 1996.
- Sæbø, Magne ed., *HBOT. I/2: The Middle Ages*. Göttingen: V&R, 2000.

류성민 교수의 “고난받는 성도와 보존하시는 하나님: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을 통해 본 성도의 고난”에 대한 논평

이신열 (고신대학교)

먼저 ‘고난’과 ‘보존’이 성도의 삶에 중요한 주제임이 분명하지만 그동안 많이 간과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필수적인 주제를 종교개혁자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을 통해서 고찰해 주신 류성민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간략하게 논문의 전체적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 서론
- II. 멜란히톤과 교회의 고난
- III. 시편에 나타난 고난의 삶
- IV. 개인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고난과의 관계
- V. 교회의 고난과 원인
- VI. 고난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 VII. 고난이 성도에게 주는 효과
- VIII. 결론

본 발제에 대해서 논문의 완성도를 드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논문의 구성에 있어서 약간 중복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단락 II와 III은 제목만 놓고 보았을 때 내용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VI과 VII도 논평자가 판단하기에는 두 단락이 추구하는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서론에 “멜란히톤의 신학은 루터의 성만찬 교리와 일치신조 (1580)와는 달리 개혁파 신학과 일치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나마 첨언된다면 독자들의 이해 증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의 신학이 개혁파 신학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신학을 개혁파 신학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 논평자의 소견인데 이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묻고 싶다.

셋째, ‘보존’이라는 주제가 이 논문의 전체 제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단락 제목설정에는 이 주제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든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 본론을 구성하는 6개의 소단락 가운데 적어도 1-2개 정도에는 ‘보존’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이 논문의 전체 제목과 더 효과적으로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독일의 16세기 종교개혁자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에 나타난 고난과 보존의 개념을 깊이 있게 고찰해 주신 발제자의 시도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고통에 대한 헤르만 바빙크의 견해

박재은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과, 조직신학)

### I. 들어가는 글

이 세상 곳곳에 고통이 가득하다. 크고 작은 고통들이 즐비하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생사를 넘나들며 사력을 다해 고통과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세상 속의 악은 또 어떤가? 강력 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 수법과 결과가 더 잔혹해지고 있으며, 지진, 해일, 산사태, 홍수, 전염병 등 인간을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고통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고통은 바로 내 옆에 파리를 틀고 잔뜩 도사리고 있다.

왜 신자들에게도 고통이 가득한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돌보시는(마 6:30) 하나님께서 정작 왜 자기 자녀인 신자들의 삶은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신실하게 신앙 생활하는 경건한 신자들에게도 왜 끔찍한 고통이 닥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긴 한 것일까? 선하신 분이려면 이 세상에 창궐하는 고통을 이토록 철저히 외면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종류의 신정론(神正論, theodicy) 문제는 늘 존재해왔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고통의 존재 사이의 양립 가능성 혹은 양립 불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다채롭게 표출되어왔다.<sup>2</sup>

본고는 19-20세기 유럽 네덜란드를 살았던 개혁파 교의학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의 빛 아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고통의 문제를 살핀다. 물론 바빙크는 신정론을 다루는 현대 학자들의 글이나 논조처럼 세련된 논지를 뽑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백 년 전 19-20세기 개혁파 교의학자답게 논지 자체가 투박하고 본질적이다. 사실 이 지점을 드러내는 것이 본 연구의 존재 목적이다. 왜냐하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타 부차적인 논의 보다는 보다 더 궁극적인 ‘신학적 본질’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바빙크는 이 작업을 능숙하게 해내었다.

악과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기존 연구물은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많다.<sup>3</sup> 코로나

1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마 6:30). 앞으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성경 인용은 개역개정역 인용이다.

2 일찍이 신학자들은 선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존재하는 고통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왔다. 고전적(classical) 책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Thomas Boston, *Crook in the Lot Or, the Sovereignty and Wisdom of God Displayed in the Afflictions of Men* (London: Glasgow printed for T. Davies, 1752); C. S. Lewis, *The Problem of Pai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44); Philip Yancey, *Where Is God When It Hurts*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77); 고전은 아니지만 고통을 목양적으로 접근해 성경적 해답을 내놓은 Timothy Keller,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New York: Dutton, 2013)도 참고하라. 고통에 대한 개혁신학적 견해를 잘 정리한 R. C. Sproul, *Surprised by Suffering*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1988)도 참고하라.

3 근 3년 이내에 출간된 관련된 국내 연구물들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영수·이규성, “신정론에 관한 신학적 고찰: 요한 바티스트 메츠와 유르겐 몰트만을 중심으로,” 「신학과철학」 44 (2023): 121-141; 김재선, “한국교회 공동체의 신정론: 분열의 아름다움과 악,” 「신학논단」 111 (2023): 33-71; 황든형, “십자가에서 극복된 무: 칼 바르트의 새로운 신정론,” 「조직신학연구」 42 (2022): 46-81; 박영식, “판넬베르

팬데믹과 같은 시대적 정황과 결부되어 더 많은 연구물이 창출되었다.<sup>4</sup> 하지만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서술된 관련 논문은 턱없이 부족하다.<sup>5</sup> 본고는 이런 연구의 결핍을 채우는 용도로도 작용한다.

본고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바빙크의 『개혁교의학』(*Gereformeerde Dogmatiek*)<sup>6</sup>과 『계시 철학』(*Philosophy of Revelation*)<sup>7</sup>을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 논지의 흐름, 즉 고통과 섭리, 고통과 죄, 고통과 유익, 고통과 자연과학의 흐름 가운데서 고통에 대한 바빙크의 견해를 요목조목 살필 것이다. 그 후 앞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실천적 고찰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논의를 전반적으로 요약·정리하며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바빙크 당시는 1차 세계 대전이 창궐했던 시대였다.<sup>8</sup> 세계 대전이야말로 악과 고통의 각축장이었다.<sup>9</sup> 바빙크는 악과 고통의 치열한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굵직한 필지로 신학적 진술을 남겼다. 이런 필지는 악과 고통의 현대적 각축장의 한 복판에서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올바른 방향성 설정을 능히 해줄 수 있는 필지라고 확신한다.

## II. 고통에 대한 헤르만 바빙크의 견해

바빙크는 『개혁교의학』의 한 챕터를 의도적으로 할애해 고통과 악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오히려 고통에 대한 바빙크의 견해는 『개혁교의학』 전4권 전반에 걸쳐 산재되어 흩뿌려져 있다. 이런 사실은 고통을 바라보는 바빙크의 견해가 일관성 없이 들쭉날쭉하다는 결론을 필연적으로 도출해내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바빙크는 『개혁교의학』 전반에 걸쳐

크 신학의 신정론,” 「신학사상」 199 (2022): 125-148; 이일례, “가난한 자의 탄원 속에 나타나는 신정론 이해: 시편 10편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7.4 (2021): 187-214; 이관표, “과학시대, ‘신’에 대한 현대 자연신학의 논의: R. 스윈번과 R. 스타나드의 신 이해 그리고 신정론에 대한 대답들,” 「한국조직신학논총」 64 (2021): 71-106; 문시영, “고통의 문제에 대한 덕 윤리의 통찰: 하우어워스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52.5 (2020): 131-152.

4 조영호, “코로나 ‘이후’ 신정론,” 「기독교철학」 37 (2023): 385-417; 박준양,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 실존과 사명에 관한 성찰: 조직신학적 접근,” 「가톨릭신학과사상」 85 (2021): 8-43; 박영식, “피조세계의 고통과 하나님의 돌봄,” 「神學과 宣敎」 58 (2020): 43-72.

5 물론 해외 학계에서는 관련 연구물이 존재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양이 많지는 않다. 고통과 하나님의 섭리의 관계성에 대한 설교 연구로는 이승진,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설교,” 「복음과실천신학」 35 (2015): 252-288을 참고하라. 해외 학계에서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개혁파 입장에서 다양한 입장이 피력되었다. 예를 들면 장 칼뱅(Jean Calvin)의 신학으로 고통의 문제를 다룬 Thiago Machado Silva, “God and the Meaning of Human Suffering Based on Calvin’s Theological Perspective: A Theodicy,” *Puritan Reformed Journal*, 7.2 (June 2015): 79-94;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로 본 Harry Boonstra, “Understanding Providence,” *Perspectives*, 25.3 (March 2010): 20-23; 홀로코스트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으로 본 Isaac C. Rottenberg, “The Holocaust and Belief in a God of Holy Love,” *Reformed Journal*, 32.5 (May 1982): 20-25; 믿음과 고통의 관계성을 논구한 Lewis B. Smedes, “Faith and Suffering,” *Reformed Journal*, 15.3 (March 1965): 6-8 등을 참고하라.

6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전4권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네덜란드 원문과의 비교를 위해서 *Gereformeerde Dogmatiek*의 electric version을 활용했다. *Gereformeerde Dogmatiek*이 각주에 인용될 때는 페이지 숫자를 명기하지 않았고 원문만 소개했다.

7 Herman Bavinck, *Philosophy of Revelation: A New Annotated Edition*, 코리 브룩·나다니엘 수탄토 편, 박재은 역·해제, 『계시 철학: 개정·확장·해제본』 (군포: 다함, 2019).

8 Cf. 박재은, “창조계로의 참여” 모티브에 근거한 헤르만 바빙크의 전쟁관,” 「개혁논총」 29 (2014): 93-125.

9 1차 세계 대전과 바빙크의 삶의 관계성에 대해서라면 James Eglinton, *Bavinck: A Critical Biography*, 박재은 역, 이상웅 감수, 『바빙크: 비평적 전기』 (군포: 다함, 2022)을 참고하라.

서론(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폭넓게 다루었다. 바빙크는 교의학 전반의 각론을 체계적으로 다루면서 늘 ‘일관적으로’ 고통의 문제를 각각의 신학적 맥락 속에서 의도적으로 건드렸다.<sup>10</sup> 그렇게 했던 이유를 유추해 보면 아마도 모든 신학적 진리 체계 내에서 고통에 대한 질문의 답을 다채롭게 내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가늠해 본다.

## 1. 고통과 섭리

고통에 대해 논하며 바빙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은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점이었다. 즉 바빙크는 고통을 ‘신론적으로’ 접근한다. 바빙크에게 있어 모든 것은, 그 모든 것 안에 고통과 악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악으로 인해 절대 놀라지 않으신다. 바빙크의 말을 들어보자.

신자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인생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수수께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로운 동일한 아버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자신을 자기 자녀로 삼았으며, 장차 자신에게 영원한 복을 상속하게 한다는 것을 굳게 붙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은 환상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고, 자연은 은혜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종속되고 쓰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스스로 지닌다. *그래서 이 신앙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통과하여 다시 기쁨으로 미래를 바라본다*[*Zo ziet het dan door alle smart en lijden heen weer blij de toekomst in*]. 비록 그 수수께끼들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손길에 대한 신앙은 언제나 깊은 데서 다시 올라오고, 심지어 환란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한다.<sup>11</sup>

이 인용문에서 바빙크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alle smart en lijden*)을 통과하여 다시 기쁨으로 미래를 바라보라는 인간적으로는 다소 이상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실은 건조한 이상이나 사변적인 환상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vast en zeker*) 신앙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빙크에게 있어 왜 이런 사실이 확실하고 분명할까? 그 이유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미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사실이 기 때문이다(“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고”).<sup>12</sup> 바빙크는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흔들거리지 않는, 굳게 등의 의미를 지닌 네덜란드어 파스트(*vast*)와 안전한, 위험이 없는, 확실한, 신뢰할 수 있는, 틀림없는 등의 의미를 지닌 네덜란드어 제커르(*zeker*)를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적 기쁨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 사실이 확실시되는 한 신자에게 남는 것은 바빙크가 잘 지적하듯이 ‘즐거움’과 ‘기쁨’이다. 이는 로마서 5장 3-4절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다만 이뿐 아

<sup>10</sup> ‘신학적 일관성’과 ‘신학적 질서’는 바빙크의 신학 원리 중 핵심 원리이다. 이와 관련해서 박재은, “헤르만 바빙크와 동성애: 질서(*orde*)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62 (2022): 317-354을 참고하라.

<sup>11</sup> Bavinck, 『개혁교의학』, 2:739 (강조는 첨가).

<sup>12</sup> Bavinck, 『개혁교의학』, 2:739.

나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신자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계시적 은혜로 인해 미래적 기쁨이 될 것이라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앙 때문이다.

이처럼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근거한 섭리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선용(善用)하실까? 바빙크는 크게 시험, 징계, 양육으로 정리한다. 바빙크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고통으로부터 개인적인 죄를 도출해서는 안 된다(눅 13:4; 요 9:1). 고통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 단지 형벌만이 아니라, 또한 시험, 징계, 양육[beproeving, kastijding, opvoeding]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할 수 있다(롬 8:28).<sup>13</sup>

바빙크는 고통을 개인의 죄, 즉 자범죄의 결과로만 이해하는 일군의 무리들을 비판하면서<sup>14</sup> 고통이 자범죄의 결과, 즉 형벌로부터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급을 조심스럽게 남겼다. 물론 이 다음 논의인 ‘고통과 죄’의 맥락에서는 고통과 죄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는 바빙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섭리론 내에서 바라보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빙크는 고통의 귀책 사유를 인간의 자범죄로만 돌리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준다.<sup>15</sup> 오히려 바빙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in Gods hand naar zijn genade en wijsheid) 고통이 하나님의 시험, 징계, 양육(beproeving, kastijding, opvoeding)의 도구로도 능히 선용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바빙크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접근할 때 아버지-아들의 관계를 자주 언급한다.<sup>16</sup> 앞선 인용문에서도 바빙크는 고통과 악의 문제를 다루기 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로운 동일한 아버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자신을 자기 자녀로 삼았으며”<sup>17</sup>라는 말로 논의의 포문을 연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건설적인 징계로 그들을 양육한다. 바빙크는 키워냄, 양육, 교육이라는 뜻을 지닌 네덜란드어 옴부딩(opvoeding)을 사용하면서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혜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선용될 수 있는 사실을 선포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고통과 고난이라는 안타깝고도 불편한 방식으로 자기 자녀들을 건설적으로 선하게 양육하실 수 있을까? 바빙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찾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여서[Hij is zo machtig]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

13 Bavinck, 『개혁교의학』, 3:205. “Daarom mag ook uit het lijden, dat iemand treft, niet tot persoonlijke zonde worden besloten, Luk. 13:4, Joh. 9:1; het lijden dient nl. in Gods hand naar zijn genade en wijsheid niet alleen tot straf, maar ook tot beproeving, kastijding, opvoeding; Hij is zó machtig, dat Hij dengenen, die Hem liefhebben, alles kan doen medewerken ten goede, Rom. 8:28.”

14 Cf. Bavinck, 『개혁교의학』, 3:204-206.

15 바빙크는 요 9:1(“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을 언급하며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귀책 사유를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16 Cf. Bavinck, 『개혁교의학』, 2:739.

17 Bavinck, 『개혁교의학』, 2:739.

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할 수 있다.”<sup>18</sup> 하나님의 전능성 개념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그 어떤 인간적인 의심, 회의, 불투명함조차도 말끔히 제거하는 개념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므로 모든 고통과 악과 슬픔을 능히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으며, 모든 고통과 악과 슬픔을 사용하여 자기 자녀들을 능히 지혜롭게 양육하고 교육하실 수 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보이지만 전능한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불가능도 없다.

바빙크에게 있어 고통이 곧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라면 하나님은 왜 고통이라는 악독해 보이는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바빙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적인 주권’을 꺼내 든다.

하나님은 형벌로 자신의 신적인 주권[*zijn Goddelijke soevereiniteit*]을 견지한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죄인이 서야 할 자리에 서도록 내리누르고, 죄인을 그가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곳으로 데려와 그가 하급자이며,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역지로 고백하게 한다.<sup>19</sup>

바빙크는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를 하급자(*mindere*)요 피조물(*schepsel*)인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Goddelijke soevereiniteit*)에 감히 도전했기 때문으로 이해했다. 이를 반대로 치환해 이해하면, 만약 하급자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을 감히 넘보지 않았더라면 고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의 시작은 피조물의 반역 행위의 결과이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자신의 신적인 주권을 만방에 드러낸다. 피조물들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 보자. 바빙크는 고통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드러나는 섭리로 이해했다. 모든 고통과 고난은 은혜로운 계시에 근거해 미래적 기쁨으로 바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에게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운 양육과 교육의 수단이고, 피조물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몸소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섭리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불가해한 복(福)이다.

## 2. 고통과 죄

이 땅에 존재하는 고통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죄’다. 바빙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실감 나게 표현한다.

천사들과 사람들이 범했던 첫 번째 죄의 환경은 실책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 거의

<sup>18</sup> Bavinck, 『개혁교의학』, 3:205.

<sup>19</sup> Bavinck, 『개혁교의학』, 3:204 (강조는 첨가). “En daarom handhaaft Hij in de straf zijn Goddelijke soevereiniteit; Hij drukt door het lijden de zondaar neer op de plaats, waar hij behoort te staan, en brengt hem, waar hij het niet vrijwillig aanvaarden wil, door de straf tot de gedwongen erkenning, dat hij de mindere, dat hij niet God, maar een schepsel is.” 민데러(*mindere*)가 ‘하급자’로 번역되었지만 ‘열등한 것’으로도 번역 가능하다.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보다 모든 것에서 열등하다.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의미를 지닌 일에 있어서, 그리고 아마도 계명을 받은 직후에 하나님의 명백하고 분명한 계명을 위반한 죄다. 그것은 그 이후로 세상에서 발생하고 고통을 당한 모든 불의와 혐오스런 일들, 모든 재앙과 불행, 모든 질병과 죽음의 근원이 되었다[*Ze is de bron geworden van alle ongerechtigheden en gruwelen, van alle rampen en onheilen, van alle ziekte en dood, die sedert in de wereld bedreven en geleden zijn*]. ‘그 모든 눈물이 이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왔다’(Hinc illae lacrimae). 아담의 죄는 결코 사소한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관계들의 근본적인 역전,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와 하나님에 대항하는 혁명, 반란, 가장 실재적인 의미의 타락이 틀림없는 것으로, 세상 전체를 결정짓고 세상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방향과 길로 인도하여 사악함과 부패로 향하게 한 ‘형언할 수 없이 커다란 죄’였다.<sup>20</sup>

바빙크는 ‘죄의 본질과 영향’에 대해 다루는 『개혁교의학』 3권에서 죄의 시작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두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sup>21</sup> 사실 앞서 논의했던 고통과 섭리의 관계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죄의 저자, 악의 저자, 고통의 저자로 얼마든지 잘못 치부할 수 있는 오류가 창출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섭리적 방식으로 선용하신다면 결국 하나님을 고통의 저자로 논리적으로 상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바빙크는 이런 상정을 지극히 경계했다. 바빙크에게 있어 고통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었다.

바빙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een mens, die naar Gods beeld was geschapen*)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지음을 통해 모든 것이 어긋났다고 말하며, 그 어긋남의 범주와 대상이 곧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의 범주와 대상이라고 특징화한다. 죄로 인해 어긋난 모든 것은 “세상에서 발생하고 고통을 당한 모든 불의와 혐오스런 일들, 모든 재앙과 불행, 모든 질병과 죽음”<sup>22</sup>이다. 그러므로 바빙크는 인간의 죄야말로 ‘형언할 수 없이 커다란 죄’(ineffabiliter grande peccatum)이며, 이 형언할 수 없이 커다란 죄로 인해 온 세상 속 고통이 존재케 되었다고 바르게 설명한다.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가 이 땅에 존재하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의 범주와 범위는 어디까지 미칠까? 바빙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설명한다.

심지어 이성 없는 피조물조차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허무한 것과 썩을 것에 굴복하고, 이제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런 나타남을 기대하고, 그 자신 또한 썩어짐의 종 노릇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고대한다(롬 8:19-22). 성경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비관적이 아니라, 고통을 알고 인정하며 가장 심금을 울리는 한탄으로 그 고통을 해석한다.<sup>23</sup>

20 Bavinck, 『개혁교의학』, 3:155 (강조는 첨가).

21 Cf. Bavinck, 『개혁교의학』, 3:153-155.

22 Bavinck, 『개혁교의학』, 3:155.

23 Bavinck, 『개혁교의학』, 3:214. “Zelfs de redeloze schepping is door God om de zonde van de mens aan de paaiothv en fyora onderworpen, en zucht nu gemeenschappelijk, als in barensnood verkerend, de openbaring van de heerlijkheid van Gods kinderen te gemoet, op hope van dan ook zelf bevrijd te worden van de dienstbaarheid van de verderfenis, Rom. 8:19-22. De

죄의 결과인 고통의 범주는 ‘이성 없는 피조물’(de redeloze schepping)에게까지도 미친다. 이성 없는 피조물, 즉 땅, 하늘, 바다, 숲조차도 허무한 것, 썩을 것에 굴복당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 바빙크는 이 부분에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즉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συστενάζω]<sup>24</sup>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를 인용한다. 바빙크는 피조물의 탄식을 ‘비관적 탄식’으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탄적 탄식’으로 대했다. 그렇다면 비관적 탄식과 한탄적 탄식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빙크는 성경은 피조물의 탄식을 통상적인 의미에서 ‘비관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페시미스티스(pessimistisch)라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은 염세적이라는 뜻이다. 즉 이성 없는 피조물들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염세적 혹은 비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염세와 비관은 ‘소망’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느낄 수 있는 자조(自嘲) 섞인 감정이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은 염세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1절이 선포하는 진리 때문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ἐλευθερώω]<sup>25</sup>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피조계는 죄로 인해 함께 한탄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의 한탄은 비관적 한탄이 아니다. 오히려 피조물들은 미래적 소망을 품고 한탄적 탄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탄적 탄식은 무엇일까? 한탄은 앞으로는 분명히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재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슬피 운다는 의미가 서려 있다. 바빙크는 이를 “고통을 알고 인정하며 가장 심금을 울리는 한탄”<sup>26</sup>이라고 표현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빠진 피조 세계는 온전히 회복될 날을 고대하며 한탄적 탄식을 하고 있다.

물론 바빙크는 이 지점에서 소위 ‘환경 윤리’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점에서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 실천적 논의는 환경 윤리에 대한 이해이다.<sup>27</sup> 환경 오염, 팬데믹 전염병, 지구 온난화 문제, 우주 쓰레기 문제, 해양 투기 문제,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온갖 종류의 폐수 문제 등은 이성 없는 피조물에게까지 미친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바빙크의 표현을 빌린다면, 온 피조 만물이 환경적으로 ‘한탄적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조 세계 전반에 미친 죄로 인한 고통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바빙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답을 내놓는다.

만일 우리가 언젠가 세상과 인류로부터 그 어떤 의심도 없이 직접적으로 혹은

---

Schrift is niet pessimistisch in de gangbare zin van het woord, maar zij kent en erkent het lijden en vertolkt het in de roerendste klachten, Gen. 47:9, Job 3, 6, 7, 9, 14 enz., Ps. 22; 38; 39; 69; 73; 74; 79; 89; 90 enz.. Predediker, Klaagliederen, Matt. 6:34, Rom. 7:24, 8:19v., 1 Cor. 15:19 enz.”

24 롬 8:22은 ‘함께 탄식하다’의 의미를 지닌 헬라어 동사 시스테나조(συστενάζω)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함께 신음하다’라고도 번역 가능한 동사이다. 인간의 죄로 인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단어이다.

25 롬 8:21에서 ‘해방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엘루데로오(ἐλευθερώω)인데 그 뜻은 자유롭게 하다, 풀어주다 등이다.

26 Bavinck, 『개혁신학』, 3:214.

27 Cf. 박영식, “피조세계의 고통과 하나님의 돌봄,” passim.

간접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모든 고난을 제거할 수 있다면, 가장 크고도 극심한 고난은 즉시 멀리 사라지고, 고난의 문제는 극히 작은 차원으로 축소될 것이다. 죄와 비참 사이에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죄가 갖는 여파는 모든 사람이 판단하듯이 온갖 끔직한 결과들로서, 단지 공포, 후회, 수치, 망신, 양심의 가책 등과 같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질병, 고생, 고통, 가난, 인간성 말살 등과 같은 실질적인 결과들을 수반한다. 이것은 단지 감각적 쾌락, 술에 빠짐, 섹욕 등과 같은 육체적인 죄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상 숭배, 미신, 불신, 거짓, 탐욕, 허영, 교만, 증오, 질투, 분노 등과 같은 보다 정신적 성격을 지닌 죄에도 해당된다. 그것들 모두는 다소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 육체를 황폐화시킨다. 개인적인 사람들, 가정들, 가족들, 세대들, 민족들 그리고 국가, 교회, 사회, 학문, 예술에서 계속되는 정신적 비참함과 육체적인 고생의 원인은 죄에 있다. *죄를 제거한다면, 모든 사람이 동의 하듯이, 그 어떤 고통도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Neem deze weg, en er blijft volgens aller instemming bijna geen lijden meer over*].<sup>28</sup>

바빙크는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이므로, 죄를 제거하면 그 어떤 고통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바빙크는 “개인적인 사람들, 가정들, 가족들, 세대들, 민족들 그리고 국가, 교회, 사회, 학문, 예술에서 계속되는 정신적 비참함과 육체적인 고생의 원인은 죄”<sup>29</sup>라고 지적하며 만약 죄가 제거된다면 정신적인 비참함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대변되는 고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죄가 궁극적으로 제거되는가? 바빙크는 이 부분에서 ‘종말론적 관점’을 견지한다. 즉 죄는 이 땅, 즉 현세에서는 절대로 제거될 수 없고, 이 땅에서의 순례가 마침표를 찍을 때 비로소 제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고통은 이 땅에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고통은 이 땅 너머에서만 죽는다. 바빙크는 종말론을 다루는 『개혁교의학』 4권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경건한 자들이 죽음 후에도 여전히 죄의 형벌이나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경건한 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확실한 기대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순례길이 끝나고 하늘의 영원하고 복된 삶에 들어간다. 죽음 후에는 더 이상 성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긴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서 있는 완전한 의인들의 영이 거룩의 상태에 들어간다.<sup>30</sup>

죄와 고통이 온전히 마무리되는 순간은 개인적 종말과 회복이라는 ‘죽음’과 우주적 종말과 회복이라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가능하다. 즉 개인의 고통은 죽음 이후에 사라지고, 만물의 고통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라지고 회복된다. 그러므로 고통과 죄의 관계는 종말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껏 고대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이 고통은 참된 종지부를 찍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과 죄에 대한 논의는 점진적인 종

28 Bavinck, 『개혁교의학』, 3:218 (강조는 첨가).

29 Bavinck, 『개혁교의학』, 3:218.

30 Bavinck, 『개혁교의학』, 4:753.



말론적 구도를 가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자.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죄다. 인간의 죄로 인해 온 피조 만물이 한탄적 탄식에 빠져 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죄가 온전히 극복될 때, 즉 주님의 재림 때에 온전히 제거되고 회복될 것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롬 5:20). 죄와 고통이 가득한 곳에 종말론의 은혜가 더할 줄 믿는다.

### 3. 고통과 유익

고통은 백해무익(百害無益)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고통은 큰 유익이 있다고 가르친다. 유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 가능한데, 인간 편에서의 유익과 하나님 편에서의 유익이 바로 그것들이다.

첫째, 신자가 받는 고통은 신자들에게 값진 영적인 유익을 선사한다. 바빙크의 말을 들어보자.

보나벤투라(Bonaventura, 1221-1274)는 확신에 있어서 신봉의 확신(*certitudo adhaesionis*)과 사변의 확신(*certitudo speculationis*) 사이를 올바르게 구별했다. 전자는 학문적 확신보다는 신앙의 확신에 있어서 더 크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어떤 논증도, 어떤 아첨도, 어떤 고통도 신앙의 동요를 초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자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신앙의 대상에 자신을 묶어 놓는다[*Hij klemmt met heel zijn ziel aan het voorwerp van het geloof zich vast*].<sup>31</sup>

바빙크는 13세기 신학자 보나벤투라를 인용하면서<sup>32</sup> 그 어떤 고통도 ‘신앙의 확신’의 동요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언급한다. 그 이유는 고통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신자들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신앙의 대상에 자신을 묶어 놓”<sup>33</sup>기 때문이다. 사실 신앙이 강한 사람은 그 어떤 논증(*argumenten*), 그 어떤 아첨(*vleierijen*), 그 어떤 고통(*pijnigingen*)에도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유지한다. 오히려 경건한 신자들에게는 세속적인 논증, 아첨, 고통이 신앙을 더 단단히 만들 뿐이다. 성경 인물 중에 고통과 고난이 없었던 인물은 없었다. 성경 인물들은 대부분 고통과 고난을 통해 더 견고하게 빚어진 고난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바빙크가 잘 지적한 것처럼, 그들은 고통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신앙의 대상에 자신을 묶어 놓았다.’

고통을 통해 자신의 온 마음을 신앙의 대상에 묶는 유익뿐만 아니라 신자는 또 다른 유익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유익이다. 바빙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죄의 용서는 자연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유익이며, 의인들은 반드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행 14:22).<sup>34</sup> 하지만 성경은 신자가 자기 자신의

<sup>31</sup> Bavinck, 『개혁신학』, 1:749.

<sup>32</sup> Bonaventura, [*primum-quartum*] *Librum Sententiarum elaborata Dilucidatio*, III, dist. 23, art.1, qu.4 (Bavinck, 『개혁신학』, 1:749n36 재인용).

<sup>33</sup> Bavinck, 『개혁신학』, 1:749.

<sup>34</sup>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죄 혹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받는 모든 고통은 형벌의 성격이 없으며 그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한 유익한 고난[*een nuttige kastijding*]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고 따라서 모든 허물과 모든 형벌에서 완전히 구원한 그리스도의 덕분이다.<sup>35</sup>

바빙크는 신자가 받는 고통은 형벌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한 ‘유익한 고난’이라고 언급한다. 바빙크는 욥기 5:17, 잠언 3:11, 고린도전서 11:32, 히브리서 12:5-11, 요한계시록 3:19을 언급하면서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맥락 하에 논의를 전개한다.

그렇다면 신자의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물론 바빙크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시편 12:6 말씀이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흠 도가니는 매우 뜨겁다. 매우 뜨거운 흠 도가니에서 일곱 번 단련한 은은 그렇지 않은 은과 비교해서 순도 자체가 다르다. 그 이유는 뜨거움이 불순물을 날낱이 제거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단련이다. ‘단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קָטַף)의 뜻은 제련하다, 깨끗하게 하다, 연단하다 등이다. 신자는 고통을 통해 제련되고, 깨끗하게 되고, 연단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자에게 있어 매우 소중한 연단의 기회이다.

둘째, 고통은 하나님 편에서도 유익이 있다. 고통은 하나님의 불가해한 지혜에 근거한 수단인데, 그 수단의 핵심 목적은 하나님의 미덕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바빙크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하나님이 보내는 고통은 자신이 기뻐하거나 천국의 복된 자들이 기뻐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미덕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een middel tot verheerlijking van zijn deugden*]이며, 따라서 이 궁극적 목적에 의해 그 크기와 무게가 정해진다.<sup>36</sup>

하나님의 섭리 하의 고통은 하나님 자신의 미덕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een middel*)이기 때문에 수단의 크기와 무게의 작동에 비례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누리시게 된다. 물론 이로 인해 하나님이 피조물들의 고통을 즐기시는 저질스러운 독재 군주가 되거나 남의 고통에 희열을 느끼는 변태적인 신으로 전락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sup>37</sup> 오히려 반대다. 오히려 섭리적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미덕(*deugden*) 즉 그분의 공의, 공명정대함, 의로움이

35 Bavinck, 『개혁교의학』, 4:196 (강조는 첨가). “de vergeving van de zonden is een weldaad van de genade, waarvan de natuur niet weet, en de rechtvaardigen moeten door vele verdrukkingen ingaan in het koninkrijk van God, Hd. 14:22. Maar de Schrift leert, dat al het lijden, hetwelk een gelovige vanwege eigen zonden of zonden van anderen overkomt, voor hen het karakter van straf verloren heeft en hun een nuttige kastijding is, opdat zij Gods heiligheid deelachtig zouden worden.” 『개혁교의학』 한글 번역본에서는 *een nuttige kastijding*가 “유익한 고난”으로 번역되었는데, “유익한 징계” 혹은 “유익한 견책”으로도 번역 가능하다.

36 Bavinck, 『개혁교의학』, 4:849 (강조는 첨가). “de smart, die Hij toezendt, is geen voorwerp van zijn verlustiging of van die van de zaligen, maar een middel tot verheerlijking van zijn deugden en dus door dit einddoel in haar zwaarte en haar mate bepaald.”

37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독재 군주 성부 하나님의 아동 학대 행위로 규정한 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는 박재은, “속죄와 윤리: 데니 위버의 만족설 비판과 조안 브라운의 신적 아동 학대 모티브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30 (2014): 161-193을 참고하라.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sup>38</sup> 그러므로 고통과 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고통과 악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더 큰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고통은 누군가에는 쓰라린 패배지만 하나님에게는 복된 승리의 순간이다. 바빙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 가운데서 즐거워하나, 죄와 형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즐거움도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죄를 사용할 때, 그는 자신의 전능을 통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것은 죄의 본성과는 상반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징벌할 때, 그는 그들의 고통 그 자체 가운데 기뻐하지 않으며, *다만 그 징벌 가운데서 자기 미덕들의 승리를 기리는 것이다*[*maar viert Hij daarin de triomf Zijner deugden*].<sup>39</sup>

이 인용문은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을 다루는 『개혁교의학』 2권의 내용인데 특별히 바빙크는 ‘유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징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징벌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미덕의 승리를 기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바빙크는 악인들의 고통에 대해 언급할 때 ‘하나님의 미덕’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가늠해 보면, 악인들이 징벌 받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sup>40</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자. 고통은 인간과 하나님 모두에게 복된 유익을 선사한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신앙이 더 단련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악인의 고통과 징벌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의 미덕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고통은 피상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경험일 수 있지만, 고통 너머에 있는 깊은 진리를 역으로 들여다보면 고통은 최선의 경험일 수 있다.

#### 4. 고통과 자연과학

바빙크는 『계시 철학』에서 당대의 사상적 조류와 치열하게 싸운다. 특히 바빙크는 그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인본주의적 철학, 자연과학, 역사 변증법, 종교사학파, 실용주의, 주관주의적 심리주의, 문화주의, 진화론적 미래학과 보다 더 맹렬히 싸운다.

이런 19-20세기 사조들과 싸우는 바빙크의 전략 중 하나가 본고의 주제인 ‘고통’과 관련 있다. 바빙크는 특히 자연과학적 사고방식과 치열하게 싸웠는데 다음의 인용문은 바빙크가 싸웠던 논점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38 Bavinck, 『개혁교의학』, 4:849.

39 Bavinck, 『개혁교의학』, 2:485 (강조는 첨가).

40 이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고백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공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뜻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그의 피조물들 위에 가지는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해,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을 지나쳐버리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작정하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justice].”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7절은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His glorious justice)라는 표현을 통해 악인들의 징벌에 대한 하나님의 미덕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과학의 정확함이 언젠가는 삶의 모든 질문들을(*alle vragen*)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운 답변을 줄 것이라는 허황된 망상에 잠시 빠져 살았다. 이를 소위 ‘르낭의 시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는 물리학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 만족했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형이상학이 필요 없다고 고백했던 시기이기도 했다.<sup>41</sup>

바빙크에 의하면 ‘르낭의 시기’는 자연 과학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능히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였다. 물리학이 모든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르낭의 시기를 살았던 자연과학자들은 ‘형이상학’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외쳤던 시대였다. 바빙크의 『계시 철학』에서 ‘형이상학’은 곧 ‘신학’을 의미한다. 즉 19-20세기 르낭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썩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을 수 없는 학문의 대표격으로 신학을 조롱조로 상정했고, 그 결과 신학의 자취를 학계에서 아예 거세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바빙크는 오히려 르낭의 시절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자연과학이야말로 이 세상 속에 잔뜩 서려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만족스러운 답도 내놓을 수 없다고 역으로 촌철살인 일침을 가했다. 바빙크의 말을 들어보자.

설사 이런 다양한 이론들 속에서도 진리의 일부가 있다하더라도, 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고통은 너무나도 크고 다양해서 하나의 원인 혹은 하나의 공식 아래서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런 이론들로 이 세계 속에 서려 있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힘들다.<sup>42</sup>

바빙크는 그 어떤 자연과학의 다양한 이론들도 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고통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효과적으로 논증했다. 그렇다면 왜 르낭의 시절 자연과학은 고통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까? 바빙크는 그 이유를 고통이 가진 근본적 본질에서부터 찾았다. 바빙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고통의 본질은 ‘육체적 본질’을 가진다기보다는 ‘윤리적 본질’을 가진다고 보았다.<sup>43</sup> 바빙크가 이 지점에서 말하는 윤리적 본질이란 ‘죄의 본질’을 뜻한다.<sup>44</sup> 이는 앞서 『개혁교의학』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던 고통과 죄의 관계성에 대한 바빙크의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논의이다.<sup>45</sup>

바빙크는 자연과학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신학은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특히 바빙크는 이 맥락에서 ‘계시’가 능히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진리를

41 Bavinck, 『계시 철학』, 105-106. 르낭에 대한 『계시 철학』 편집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바빙크는 영향력 있는 프랑스 학자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 1823-92)을 언급한다. 르낭은 가톨릭 신앙을 가진 채 공부를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종교적 신앙이 헤겔의 점진적 형이상학과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한 인물이었다. 르낭의 『예수의 삶』(*Vie de Jesus* [Paris: Nelson Éditeurs, 1863])은 역사적 비평 방법론을 가지고 유대교 영향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예수를 그려낸 책이다. 르낭의 『학문의 미래: 1848년의 생각』(*L'Avenir de la science: Pensées de 1848* [Paris: Ancienne Maison Mechel Lévy Frères, 1890])은 종교적 신앙과 형이상학에 얽매이지 않은 학문의 토대 위에서의 낙관적인 인간 발전상을 그린 책이다. 르낭은 이 책에서 인간은 진보를 통해 하나님의 신적 속성들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Bavinck, 『계시 철학』, 105n1.

42 Bavinck, 『계시 철학』, 226 (강조는 첨가).

43 Bavinck, 『계시 철학』, 227.

44 Bavinck, 『계시 철학』, 227.

45 Cf. Bavinck, 『개혁교의학』, 3:155.

다음과 같이 줄곧 선포했다.

*계다가 우리가 가진 영웅들의 증거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은 믿음으로 극복 가능하다. 이미 자연 속에서 드러났고 성경을 통해 더 선명히 드러난 계시의 방식만이 온갖 조화롭지 못한 것들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다. 계시는 이 세계 속에 서려 있는 각종 고통들을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계시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수납한다. 이 수납은 비관적인 문헌들이 늘 그렇듯 불평에 대한 비애감을 초월하는 식의 수납이 아니다. 계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에 저항하고 반항하라고 부추기지 않는다. 오히려 계시는 사람들 자신의 삶 속에서 죄책 의식을 털어놓게 만든다. 계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는가?’<sup>46</sup>*

바빙크에 따르면 계시는 고통의 존재를 겸비하게 인정하고 수납할 뿐만 아니라, 계시를 통해 고통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극복되고 화해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시가 고통을 극복하는가? 바빙크의 대답이다.

*계시는 비하 상태에 빠진 사람을 즉각적으로 다시 일으킨다. 계시는 사물들에 대해 극기적 무관심이나 운명론적 묵인을 설교하지 않는다. 오히려 계시는 말씀을 통해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끔 만들어 준다.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믿음의 인내로 사람들의 영혼을 채운다. 이를 통해 연약한 사람들은 모든 고통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박해 속에서 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며 결국 이 세계를 극복하게 된다.<sup>47</sup>*

계시가 고통을 극복하는 이유는 계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신자들의 영혼 안에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바빙크에 의하면 계시가 믿음의 인내를 고양시키지, 자연과학은 믿음의 인내를 전혀 고양시키지 못한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은 계시와 더불어 역사하시지, 자연과학과 더불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자. 자연과학이 품어왔던 19-20세기 르낭의 시절 때 신학은 본연의 위치를 강탈당했다. 하지만 바빙크가 효과적으로 논증하듯, 자연과학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 그 어떤 궁극적인 해답도 내려 줄 수 없었다. 오히려 계시에 근거한 신학과 계시에 근거한 믿음만이 삶 속 구석구석에서 영향력을 자유분방하게 행사하는 고통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고통은 자연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학의 영역이므로 신학으로 극복 가능하다.

### III. 실천적 고찰

사실 고통의 문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그 이유는 실제로 뼈아픈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려 있고 처한 상황에 대한 원망과

46 Bavinck, 『계시 철학』, 227 (강조는 첨가).

47 Bavinck, 『계시 철학』, 227 (강조는 첨가).

불평으로 전인(全人)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더 큰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하더라도, 격양된 정서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바로 ‘바른 지식’이다. 바빙크는 이를 능히 잘 지적해 주었다.

첫째,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굳건한 지식만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을 비로소 형성해 낼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신자의 신앙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섭리적 개념은 신자들의 신앙의 토대가 되고, 신자들의 굳건한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드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섭리적 고통은 성숙한 신앙을 세우는 지름길이다.

둘째, 고통은 죄로부터 온다. 죄는 질서의 깨짐이다. 하나님의 법이 가진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다. 질서가 깨지면 고통이 찾아온다. 만약 신자의 삶에 고통이 엄습한다면, 스스로를 겸비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내 안에, 내 주변 환경에 혹시라도 질서를 깨는 죄의 모습이 존재하지는 않은지 자성적 고찰을 해보아야 한다. 나에게 닥친 고통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 반드시 그 고통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다.

셋째, 고통으로부터 유익을 누려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단단한 물질로 알려져 있는 다이아몬드는 자연산일 경우 대부분 지하 120-250km 부근의 암석권 맨틀 하부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땅속 깊숙한 곳에서 탄소가 대단히 뜨거운 지열과 높은 지압을 견뎌낸 결과 다이아몬드라는 단단한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고통이라는 지열과 지압을 견딘 결과는 다이아몬드라는 유익일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고통 가운데서 ‘비관적 탄식’보다는 다이아몬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세로 ‘섭리적 인내’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그 어떤 과학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사상도 아닌 계시에 근거한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sup>48</sup>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극복하게 만든다. 믿음이 고통을 즐기고 누리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통을 겪은 존재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이겨내신 유일한 방법도 성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믿은 ‘믿음’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믿음을 통해 십자가 사역을 감내해 내신 후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부활·승천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남은 것은 부활과 승천이다. 더 이상의 고통과 죽음은 없을 것이다. 신자의 최종 종착역은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이다.

물론 고통에 대한 바빙크의 논의, 즉 앞서 살펴봤던 고통과 섭리, 고통과 죄, 고통과 유익, 고통과 자연과학에 대한 논의는 고통을 대하는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궁극적이고도 본질적인 ‘신학적 원리’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원리들이 소중한 하나 고통의 문제는 언제나 ‘목양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원리들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소비하느냐가 관건이다. 고통을 향한 정서적 공감과 감정적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태 속에서 이런 신학적 원리가 지혜롭고도 조심스럽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진리 안에서 애통하셨던 것처럼 말이다(요 11:35).

<sup>48</sup> 바빙크는 평소 원고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바빙크의 설교문은 단 한 편 뿐이다. 그 설교 제목은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능력”이다. 이처럼 바빙크는 ‘믿음’을 강조했던 신학자였다. 바빙크의 설교문은 Herman Bavinck, 『헤르만 바빙크의 설교론: 설교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제임스 에글린턴 편, 신호섭 역 (군포: 다함, 2021)을 참고하라.

## IV. 나가는 글

고통을 향한 바빙크의 전반적인 견해를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문단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단지 죄의 시작만 아니라, 그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전능한 힘으로 통치한다. 하나님은 죄를 자주 억제하거나 제한하며, 그 여세를 규제하고, 판단과 심판을 통해 종결짓는다. 또한 하나님은 죄가 지속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도, 그것을 지도하며, 용서하든 정벌하든 그것을 종결지으며, 죄가 바라고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자기 경륜의 시행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쓰이도록 한다. 죄, 부정의 죄악(*malum culpae*)과 마찬가지로, 고난, 징벌의 고통(*malum poenae*)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onder de heerschappij Gods*] 있다.<sup>49</sup>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밖에 있지 않다.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기 경륜의 시행’이며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고난, 징벌, 고통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존재한다. 그러므로 고통의 종결도 하나님이 하신다.

19-20세기 개혁파 교의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이런 생각은 아마도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바빙크의 이런 생각은 실제로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뭇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다. 고통을 통해 자기 경륜을 시행하시며 고통을 통해 자기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다. 바빙크가 묘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심지어 선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고통에 대한 이런 바빙크의 견해에는 진리가 존재한다. 만약 모든 일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 믿는다면(사 14:26),<sup>50</sup> 바빙크의 견해는 아주 이상한 견해가 아닐 수 있으며, 만약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롬 8:28)<sup>51</sup>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하심의 방식을 믿는다면, 바빙크의 견해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견해일 수 있다. 만약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눅 11:11),<sup>52</sup> 바빙크의 견해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으며, 만약 하나님 아버지는 능히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창 50:20),<sup>53</sup> 바빙크의 견해는 오히려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주춧돌로 작용할 수 있다.

바빙크가 『개혁교의학』과 『계시 철학』에서 전개했던 고통을 대하는 신학적 원리들을 옅기 6:10 말씀과 더불어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낼 필요가 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고통과 섭리, 고통과 죄, 고통과 유익, 고통과 자연과학에 대한 논

49 Bavinck, 『개혁교의학』, 2:768.

50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습니다.”

51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52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53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의를 곱씹으며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인내하다 보면 용이 증거하듯이 참된 ‘위로’와 ‘기쁨’이 고통의 잣더미 속에서도 풍성하게 선사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은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다.

## 참고문헌

- Bavinck, Herman. *Gereformeerde Dogmatiek*.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전4권.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 \_\_\_\_\_. *Philosophy of Revelation: A New Annotated Edition*. 코리 브록·나다니엘 수탄토편. 박재은 역·해제. 『계시 철학: 개정·확장·해제본』. 군포: 다함, 2019.
- \_\_\_\_\_. 『헤르만 바빙크의 설교론: 설교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제임스 에글린턴 편. 신호섭 역. 군포: 다함, 2021.
- Boston, Thomas. *Crook in the Lot Or, the Sovereignty and Wisdom of God Displayed in the Afflictions of Men*. London: Glasgow printed for T. Davies, 1752.
- Boonstra, Harry. “Understanding Providence.” *Perspectives*, 25.3 (March 2010): 20-23.
- Eglinton, James. *Bavinck: A Critical Biography*. 박재은 역. 이상웅 감수. 『바빙크: 비평적 전기』. 군포: 다함, 2022.
- Keller, Timothy.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New York: Dutton, 2013.
- Lewis, C. S. *The Problem of Pai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44.
- Rottenberg, Isaac C. “The Holocaust and Belief in a God of Holy Love.” *Reformed Journal*, 32.5 (May 1982): 20-25.
- Smedes, Lewis B. “Faith and Suffering.” *Reformed Journal*, 15.3 (March 1965): 6-8.
- Silva, Thiago Machado. “God and the Meaning of Human Suffering Based on Calvin’s Theological Perspective: A Theodicy.” *Puritan Reformed Journal*, 7.2 (June 2015): 79-94.
- Sproul, R. C. *Surprised by Suffering*.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1988.
- Yancey, Philip. *Where Is God When It Hurts*.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77.
- 김재선. “한국교회 공동체의 신정론: 분열의 아름다움과 악.” 『신학논단』 111 (2023): 33-71.



- 김영수·이규성, “신정론에 관한 신학적 고찰: 요한 바티스트 메츠와 유르겐 몰트만을 중심으로.” 「신학과철학」 44 (2023): 121-141.
- 문시영. “고통의 문제에 대한 덕 윤리의 통찰: 하우어워스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52.5 (2020): 131-152.
- 박영식. “피조세계의 고통과 하나님의 돌봄.” 「神學과 宣敎」 58 (2020): 43-72.
- \_\_\_\_\_. “판넨베르크 신학의 신정론.” 「신학사상」 199 (2022): 125-148.
- 박재은. “속죄와 윤리: 데니 위버의 만족설 비판과 조안 브라운의 신적 아동 학대 모티브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30 (2014): 161-193.
- \_\_\_\_\_. “‘창조계로의 참여’ 모티브에 근거한 헤르만 바빙크의 전쟁관.” 「개혁논총」 29 (2014): 93-125.
- \_\_\_\_\_. “헤르만 바빙크와 동성애: 질서(*orde*)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62 (2022): 317-354.
- 박준양.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 실존과 사명에 관한 성찰: 조직신학적 접근.” 「가톨릭신학과사상」 85 (2021): 8-43.
- 이관표. “과학시대, ‘신’에 대한 현대 자연신학의 논의: R. 스윈번과 R. 스타나드의 신 이해 그리고 신정론에 대한 대답들.” 「한국조직신학논총」 64 (2021): 71-106.
- 이승진.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설교.” 「복음과실천신학」 35 (2015): 252-288.
- 이일례. “가난한 자의 탄원 속에 나타나는 신정론 이해: 시편 10편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7.4 (2021): 187-214.
- 조영호. “코로나 ‘이후’ 신정론.” 「기독교철학」 37 (2023): 385-417.
- 황돈형. “십자가에서 극복된 무: 칼 바르트의 새로운 신정론.” 「조직신학연구」 42 (2022): 46-81.

## 박재은, “고통에 대한 헤르만 바빙크의 이해” 논평

우병훈 교수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의학)

### 요약

본 논문은 바빙크의 『개혁교의학』과 『계시 철학』을 중심으로 고통의 문제를 논한다. 저자는 크게 네 가지 주제, 즉 고통과 섭리, 고통과 죄, 고통과 유익, 고통과 자연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통에 대한 바빙크의 견해를 고찰하고 있다. “고통은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끝나는 본 논문은 고통에 대한 바빙크의 진지한 신학적 통찰을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첫째, 바빙크는 고통에 대해 신학적으로 접근한다. 모든 주제를 인간학적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바빙크 신학의 주요한 특징이다. 신학적인 접근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해당 주제를 다루는 것이다. 바빙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과 교육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고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는 자리다. 저자는 바빙크의 견해를 요약하면서,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섭리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불가해한 복(福)”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바빙크는 고통을 죄의 결과로 본다.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가 고통의 원인이다. 타락의 결과로 모든 피조물이 탄식 가운데 있다. 하지만 종말 즉 주님의 재림 때에 모든 죄와 고통이 궁극적으로 제거된다. 종말론이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된다.

셋째, 바빙크는 고통에도 유익이 있다고 가르친다. 고통은 신자에게 영적 유익을 준다. 고통은 하나님께 자신을 묵도록 만든다. 고통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돕는 수단이 된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바빙크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빙크는 언급하고 있다.] 고통은 하나님 편에서도 “유익(?)”이 있다고 저자는 [바빙크를 요약하면서] 주장한다.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공의의 미덕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신자 혹은 피조물의 고통이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는 표현보다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달성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바빙크는 고통의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계시라고 주장한다. 자연과학은 고통에 답을 줄 수 없는데, 고통은 너무나 크고 다양하기 때문이며, 고통의 본질은 물질적이지 않고 윤리적이기 때문이다. 계시가 고통을 극복하게 도울 수 있는 까닭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신자들에게 인내를 채우시기 때문이다.

저자는 고통에 대한 바빙크의 견해를 이상과 같이 정리한 후에, 결론적으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목양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친다.

### 의의

본 논문이 지니는 다양한 장점들 중에 특히 아래와 같은 점을 부각하고 싶다. 첫째, 고통에 대한 바빙크의 견해를 총체적으로 잘 요약하였다. 둘째, 고통에 대한 신학적 접근의 유익을 잘 보여주었다. 셋째, 고통을 단지 이론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리고 목양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 질문 및 제안사항

본 논문은 고통에 대한 바빙크의 논의를 탁월하게 잘 다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좀 더 논

의를 발전시키고자 아래와 같은 질문과 제안사항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고통에 대한 바빙크의 접근은 너무 주지주의적이라서 현대인에게 다가가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마치 고통에 대한 관점만 바뀌면 고통이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이 아닌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을 지성적 관점에서 다뤘다. 하지만 정작 그의 아내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쓴 『헤아려 본 슬픔』에서는 하나님을 가학적인 우주적 새디스트라고 부르면서 비난하고 원망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루이스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루이스의 경험은 고통에 대한 지성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준다. 논평자는 이 점이 고통에 대한 바빙크의 이해의 약점인 것 같은데, 저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저자는 [각주 35번 이하의 논의에서] 고통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빙크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빙크는 다음과 같이 적어도 두 군데에서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고통이 거룩에 참여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논한다. 우선, 『개혁교의학』 3권에서 히 2:9, 8:1, 12:2, 5:9 등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 자신이 고통을 통해서 거룩해졌다고 적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고통을 통해서 지혜와 성숙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됐다는 뜻이다(*Reformed Dogmatics* 3:434 [#399]). 또한, 『개혁교의학』 4권에서도 히 12:10과 벴전 4:1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육체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죄를 그친다고 주장한다(*Reformed Dogmatics* 4:636 [#560]). 따라서, 이런 부분을 밝혀주면 좋을 것이다.

셋째, 로완 윌리엄스는 고통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접근을 소개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바빙크도 역시 이러한 측면을 강조했을 것 같다. 고통에 대한 논문에 나오는 접근들 외에 “관계적 접근”을 좀 더 소개한다면 저자가 지향하는 목양적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저자는 “바빙크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접근할 때 아버지-아들의 관계를 자주 언급한다.”라고 했다[각주 16번].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 관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흐르는 양육의 관점으로만 소개했다. 그에 더하여, 하나님과 고통 받는 신자 사이의 상호교제의 관점도 다룬다면 좋을 것 같다. 가령, 본 논문에서는 “기도”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데, 기도가 고통의 시간에 주는 유익을 바빙크가 다루고 있다면 밝혀주면 좋을 것이다.

넷째, 고통에 대한 통찰을 좀 더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더욱 큰 위로가 될 것 같다. 저자는 “실천적 고찰” 넷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통을 겪은 존재도 없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통 당하심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신자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지에 대해 바빙크가 말한 부분을 밝혀준다면 논문이 더욱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다.

## 나가면서

국내에서 바빙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중 한 분이신 저자께서 고통에 대한 바빙크의 이해를 다뤄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논평자로서는 저자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는지 상상조차 힘들 지경이다. 아무쪼록 논평자의 어리석고 부족한 조언이 저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선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 귀한 논문으로 인하여 우리는 바빙크의 심오하고 유익한 신학 세계로 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다고 믿는다.